

한국환경공단 ESG 실천을 위한 안전경영현황



장동근 한국환경공단 안전관리실 대리, jdg0102@keco.or.kr

1. 한국환경공단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은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환경 친화적 국가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환경개선과 자원순환촉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환경측정망을 통해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부터 상하수도인프라 구축, 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국민생활에 밀접해있다.

공단은 ESG경영 선도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K-eco가 그린, ESG, 함께 더 나은 미래로”라는 ESG경영 비전을 정립하고, 3대 방향 10개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기관의 환경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에너지, 산업, 폐기물 등 분야별 탄소저감 중점사업을 발굴하는 등 “국가 2050 탄소중립 비전 달성”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본지에서는 공단의 전문분야인 환경은 제외하고 ESG에서 “사회(S)” 그 중에서도 공단의 안전경영 현황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2. 안전관리 초보기관에서 우수기관으로 거듭나다.

공단은 '20년도 노동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A등급”, '22년도 국가 재난관리 대통령상 수상, '23년도 국토부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매우우수 등급” 달성 등 대내외 안전관리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인고의 시간을 지나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수한 결실을 맺기까지 많은 시행 착오가 있었다. 기록치 않았던 공단의 안전관리 추진과정과 추진활동을 살펴보겠다.

2.1. 안전관리 도입기

공단의 안전전담조직(안전관리실)은 '20년도 1월에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18년도 발전소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면서 공단에도 이사장 직속 조직이 신설된 것이다. 당시 안전관리 인프라가 전무했던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이었다. 일선의 안전담당자부터 상임이사까지 노사를 아우르는 안전관리 추진체계를 21개 조직별로 구축하였고 '20년도 본사 KOSHA-MS 도입에 이어 '22년에는 지방조직을 포함한 16개 전 조직이 KOSHA-MS를 구축하였다.

2.2. 이사장의 안전경영 철학과 임직원 안전의식 내재화

중처벌 제정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흐름이었다. 직원들의 불만을 일정부분 해소하면서 안전관리를 고도화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사장의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안전경영 철학이 있었다. 안전경영을 최우선 핵심 가치로 삼고 안전경영의지를 대내외 표명하였다. 매월 경영전략회의에서 재해현황을 점검하고 무재해 본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여 격려 하는 것부터 “CEO 안전점검”을 통해 지방현장 순시까지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매월 27일을 “안전 소화행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안전 소화행은 안전 “소통·확인·행동”의 준말로 안전소통·체험·점검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자못 무거울 수 있는 안전이라는 주제를 가볍게 풀어내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안전담당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안전우선 중심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그림 1. 제1회 안전소확행의 날 행사 및 안전경영방침 선포식

2.3. 안전관리 안정기 및 전문성 강화

안전전담조직 출범이래 어느새 공단은 안전관리 도입기를 지나 안정기에 있다. 안전관리체계가 안착되기까지 기관차원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첫 번째로, 중대재해예방점검단 운영이다. 중대재해예방점검단은 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안전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건설·산업·화학 안전 등 분야별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15명을 위촉하여 고위험 작업을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더불어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고 PDCA 절차에 따라 환류까지 하고 있다. “안전 소통채널 간담회”를 통해 경영진과 외부전문가가 점검결과를 과감 없이 공유하고 전문가의 제언을 수렴해 경영활동에 반영하는 것이 그 실례이다. 특히 이 절차에 따라 '23년도에 긴급히 예산을 투입해 폐비닐처리시설의 위험요인을 개선한 바 있다.

두 번째로,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해 지방조직 안전보건활동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조직의 자율안전역량을 확보하고자 서류, 현장조치 사항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활동을 평가한다. 평가위원은 외부전문가와 안전관리실로 구성되어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 더불어 평가 결과 우수조직에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으며 금년도부터 내부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안전자격증 취득자 전폭지원을 통해 '23년도 168명이 신규취득 하였다. 이는 이사장 특별지시사항으로 지방조직 업무보고회 시 안전자격증 취득 지원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마련한 결과이며, 지원규모는 약 5천만원이다. 한 해 동안 일반 사무직을 포함한 임직원 3,000명 중에서 약 6% 인원이 자격증을 취득한 셈이니 안전에 대한 인식이 새삼 달라졌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본사 안전전문관 운영과 더불어 9개 지역환경본부·사업단의 안전담당자의 직급을 4급 이상으로 상향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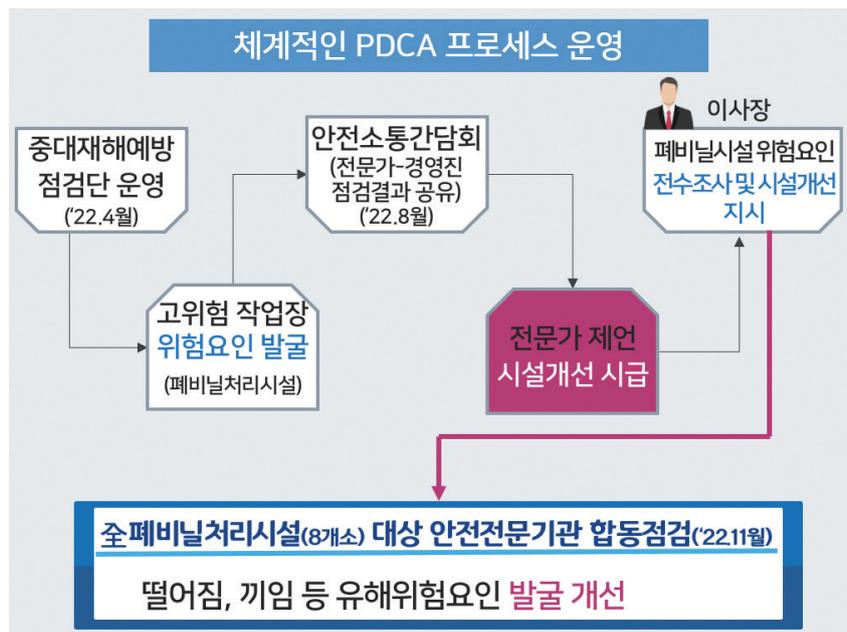


그림 2. 중대재해 예방점검단 운영 프로세스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안전담당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금년부터 우수조직의 담당자에 국외연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2.4. 협력사 안전지원

공단은 기후부터 수질, 토양정화, 자원순환까지 다양한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많은 협력사와 함께하고 있다. 다수의 환경기초시설 건설발주현장과 도급사업 등 위험요인이 다양한 현장을 관리하고 있어 협력사와 긴밀한 관계형성은 필수이다. 이에 협력사와 든든한 협력관계 구축은 물론 다방면으로 물심양면 지원하고 있다.

첫 번째로, 건설발주현장 시공자 안전활동 평가 및 포상이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의 시공자 평가를 통해 우수 시공자 사기진작과 적극적 건설안전문화 확산이 그 목적이다. 3개 우수 시공자를 선정, 포상금과 이사장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이 평가의 차별점은 2차례 평가를 하는 것이다. 1차 평가 시 미흡하더라도 2차 평가시기까지 개선이 우수한 시공자를 별도 군으로 선정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더불어 평가 결과 미흡 현장에는 안전솔루션 제공 등 안전역량 확보를 위해 집중 지원한다.

두 번째로, 협력사 참여 안전관리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23년도에는 56개 협력사가 참여하였고 4개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수여하였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맨홀 Keeper 개발” 사례는 맨홀에 보행자와 작업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기능 구현으로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2.5. 성과

이런 다양한 활동을 초석삼아 공단은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앞서 도입부에서 언급한 대통령상 수상 외에도 '23년도 중대재해 제로 달성, “안전산업 발전 유공” 행안부장관상 수상 등 현장관리와 안전문화 양측에서 값진 결실을 맺었다.

3. 향후계획

이렇듯 공단은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지만 여전히 배가 고프다. 그간 '19년 대비 산업재해가 감축되는 경향에 있으나, 최근 안전관리수준 향상 둔화에 직면해있다. 안전투자,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성장에 한계가 온 것이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중상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심도있는 중상재해 관리이다. 중상재해 발생시 피상적인 절차에서 벗어나 사고의 본질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공법변경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중점관리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행동기반 안전관리 프로그램” 확대이다. 이는 기존 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Bottom-up 방식의 근로자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불안행동을 발굴하여, 안전행동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23년도 기술진단 출장업무에 시범 도입하였으며, 금년도부터 본격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안전은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분야이다. 우리 공단의 슬로건인 “1초 먼저 생각, 2초 잠깐 멈춤, 3초 돌아보기”처럼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 이에 우리공단은 그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초심자의 자세로 계속해서 안전관리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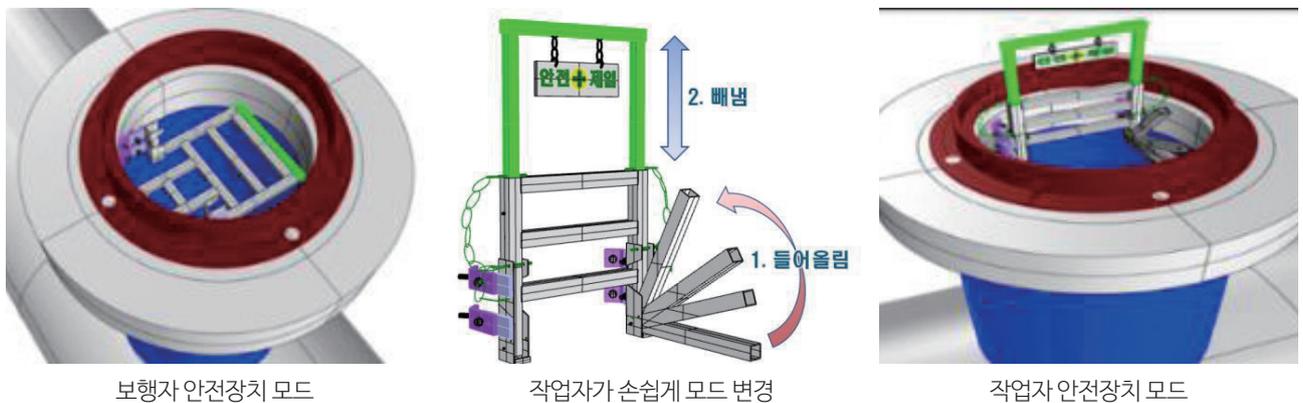


그림 3. 맨홀 Keeper 3D 모델링